

원색장마을, 농촌관광거점마을 변신

전주시, 관광편의시설 '원색마루' 개소식... 숙박시설·식당·체험시설 등 갖춰

전주시 색장동 원색장마을이 관광객을 유치하는 농촌관광거점마을로 탈바꿈된다.

시는 6일 색장동 원색장마을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승일 전북도 행정부지사, 김광수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권, 원색장마을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색장 농촌관광거점마을의 관광 편의시설인 '원색마루' 개소식을 가졌다.

전주 구도심 100만평 아시아 문화심장터 프로젝트의 주요 사업이자 전북형 농촌관광거점마을을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원색장마을 농촌관광거점마을 조성사업은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총사업비 30억원(국비 15억원, 시비 15억원)을 투입해 마을의 특화자원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농촌관광 콘텐츠를 개발하는 내용이다.

숙박시설과 식당, 체험시설 등을 갖춘 원색마루가 문을 열면서 원색장마을은 향후 차별화된 농촌관광 콘텐츠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농촌관광거점마을로서 구도심 아시아 문화심장터의 한축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했다.

원색장마을 주민공동체는 마을환경 개선 사업과 관광 편의시설인 원색마루가 완공됨에 따라 유·무형 마을 자원을 활용해 마을의 강점을 살리기 위한 방안을 찾는 등 본격적으로 농촌관광거점마을을 운영하게 된다.



시는 6일 색장동 원색장마을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승일 전북도 행정부지사, 김광수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권, 원색장마을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색장 농촌관광거점마을의 관광 편의시설인 '원색마루' 개소식을 가졌다.

또 주민공동체는 마을 현안을 주민 주도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주민 공동체 역량과 자립 역량을 키우고 마을 소득 사업을 발굴하는 등 주민 손으로 수익을 창출, 수익을 마을 발전을 위해 재투자함으로써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농촌관광거점마을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는 마을 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개선, 관광 편의시설 확충 등 물리적인 환경 개선도 중요하지만 주민들 스스로 공동체 역량을 키워 마을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

고 마을 소득 사업을 스스로 발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주민들 손으로 원색장 농촌관광거점마을을 아름답게 가꾸고 보존해 나간다면 관광객이 꼭 찾고 싶은 전주 구도심 아시아 문화심장터의 한 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규남 기자

관리운영직군 등 임용권 도교육청 통합 관리

전북교육청,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시행

지역 교육청에게 위임했던 관리운영직군 등 공무원 일부 임용권을 도교육청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됐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지난 2월 12일 전북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하고 지난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은 교육감이 교육청에게 위임했던 행정권한 가운데 관리운영직군 등 공무원 일부 임용권을 도교육청에서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제6조 제22호인 '관할기관 및 공립 소속학교 관리운영직군 내 직렬 및 운전·위생·조리·시설관리·농업직렬 공무원의 승진임용·전직·겸임·과전·강임·직권면직' 조항을 삭제, 도교육청에서 통합 관리하

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관리운영직군의 지역 간 승진 불균형을 해소하고 장기 재직공무원이 가급적 6급 이상으로 퇴직할 수 있는 인사제도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전주시, 직원 영어회화 교육 실시

전주시는 직원들이 외국인 관광객을 친절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외국어회화 역량 강화에 나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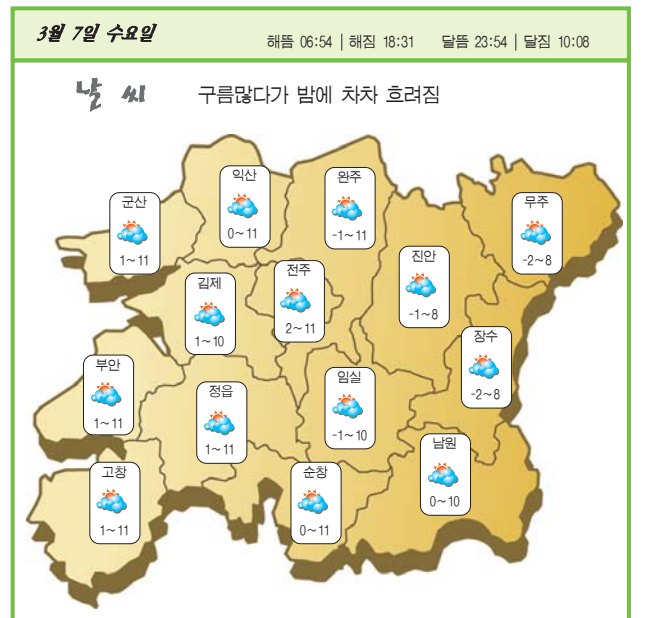
시는 외국인 관광객 응대와 글로벌 신산업 육성 등 다양한 글로벌 행정 환경 수요에 부응할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올 한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외국어회화 역량 강화 교육을 강화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과 공무원 외국어교육 협력 협약을 체결, 직원들을 위한 영어회화 어학 과정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교육이 직원들의 개인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전주시의 글로벌 역량을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반기 영어회화 교육을 실시한 후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을 거쳐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하반기에는 보다 많은 직원들이 양질의 영어회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민선5기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영어회화 교육 과정의 성과를 분석해 교육 과정과 내용을 다변화해 외국어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채규남 기자



원광대, 식품분야 전문인력 양성한다

11년 연속 커플링 사업 선정... 최근 3년 평균 취업률 89.7%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가 2008년부터 올해까지 11년 연속 대학 산·학·관 커플링 사업에 선정돼 3월부터 인력양성사업을 진행한다.

대학 산·학·관 커플링 사업은 전라북도 청년실업 및 구인·구직 간 일치지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도·대학·기업 협력체제로 기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 및 공급을 위한 것으로 기업이 선호하는 전문성과 창조성, 인성이 함양된 경쟁력 있는 우수한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청년 취업 및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2007년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추진해 2010년에 행정안전부 전국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최근 3년 평균 취업률 89.7%로 2008년부터 현재까지 11년 연속 사업에 선정된 원광대 식품산업커플링사업단(단장 이영은 교수)은 2015년과 2016년 '최우수 S등급', 2017년 '우수 A등급' 평가를 받았으며, 식품산업 전반에 걸쳐 실무능력 및 인성을 갖춘 수 있도록 교수와 기업 전문가들이 융·복합으로 기업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식품 품질안전 및 생산관리·식품연구개발·단체급식 등 식품분야 전문 인

력을 양성하고 있다.

또한, 전문 인성지도자 및 진로적성상담사를 통한 1:1 맞춤형 진로설계와 산업체 전문가 특강 및 세미나로 기업의 직무 정보 탐색을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 HACCP 탑재 기본 과정, 위생사 특강, 영양사 특강, 식습관코치지도사, 아동요리지도사, 국제 아토피상담사 과정, 학생장·단기 현장실습과 산학프로젝트 등으로 실무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올해 원광대 커플링사업단 졸업생은 마지막 남은 1명의 취업이 확정되면 100% 취업을 달성한다"고 밝힌 사업단장 이영은 교수는 "사랑의 거북이 마라톤 참여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배우고, 매주 커플링 데이를 통해 취업에 대한 자세와 적성에 맞는 진로 설계 등을 꾸준히 진행해온 것이 성공의 열쇠"라고 말했다.

이어 "식품영양학과는 영양사시험 필수과목이 18과목이나 되다 보니 정규교육과정을 산업체맞춤형과정으로 변경하기 쉽지 않아 주말과 방학을 이용해 단기 교육과정을 실시하고, 학생들의 성실한 참여가 지난 10년 동안 우수한 결과를 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며, 사업단 성과를 분석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maeil.com
구독·광고문의 288-9700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